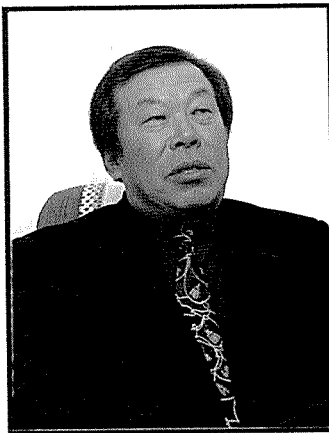


회원의 실질적 이익과 권익보호에 힘쓴다

성동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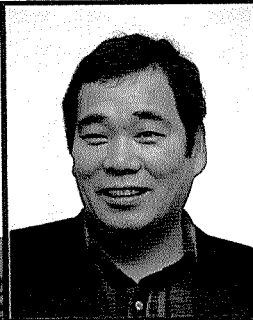
공동 구매사업의 첫 장을 열었다는 성동지회는
회원의 친목과 함께 다양한 품목의 공동구매사업,
재과점 운영에서 부딪치는 회원 업소의 관청과 관련된 행정 사항 등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는 지회이다.



박명환 지회장



신언형 부지회장



조원형 부지회장



조규환 이사



한강석 이사

‘장맛은 오래 될수록 좋다’란 말이 있다. 중·장년층이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 이 말은 되새기면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아무나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맛, 하나의 장맛에도 오랜 역사와 연륜을 필요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전에 며느리가 시집오면 시어머니가 그 집안의 장맛을 전승하기 위해 장 담그는 법을 가르치고 다시 며느리로 이어져 몇대를 거치더라도 ‘맛있고’ 일관된 장맛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각박한 현대를 살며 옛것의 그리움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장맛’이 지니는 함축적 의미의 향수를 느끼는 곳은 어디일까? 아마도 그곳은 조금은 덜 도시적이고 지금 이전의 모습이 남아 있는 곳일 것이다.

그런면에서 성북지회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장맛’ 같은 그리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같은 서울이면서도 도시 자체가 변화하거나 신도시의 낯선 느낌이 들지 않고 마음 푸근한 곳이며, 오랜 역사로 이어진 친목과 보이지

않는 지회 활동이 끊임없이 살아 숨쉬면서 은근한 저력을 발휘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1971년 창립 최초로 공동구매 시작

은근한 저력의 집결체인 성북지회가 창립된 것은 1971년. 올해로 24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조직이 결성되기 이전까지 친목형태로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것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역사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왜냐하면 초기 30여 업소 친목회 형식으로 돌아가며 친목을 다지고 정보를 교환하며 관리해온 까닭에 협회 설립만 늦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활동은 그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토대를 바탕으로 설립된 성동지회는 초기 타 지회와 마찬가지로 자체 사무실조차 없어 회원의 가게를 연락사무소로 운영하는 어려움을 겪다가 1차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4년전 지금 성수동으로 확장 이전함으로써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기틀을 마련했다.

현재 지회장을 비롯 2명의 감사, 7명의 이사가 중심이 돼 상호 친목과 회원 이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성북지회는 총 35여 동(同)에 160여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행정 구역상으로는 성동구를 비롯해 중구의 금호동 지역까지 포함돼 상당히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까닭에 성동지회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금호, 행당, 성수, 자양, 화양, 구의, 중곡 7개 지역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이사를 두고 있다.

이 지역별 이사 제도는 각 지역을 대변하는 대표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협회의 업무 지침을 전달하고 지역내의 문제를 다시 상부에 반영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성동지회는 ‘성동과우회’란 친목회가 구성돼 있어 지부 활동의 중심점이 되고 있다. 35명으로 구성된 이 친목모임은 매월 1

회의 모임을 갖고 친목을 다지는 한편 회원 간 슬픔과 기쁨을 같이함으로써 성동지회 친목의 한 모범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지회 차원으로 성동지회는 1년에 한번 정기 총회를 야외에서 개최하는 한편 함께 체육대회를 병행함으로써 화합의 한마당을 마련하고 있어 회원을 하나로 묶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오랜 역사와 그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온 동북지회는 은근한 저력을 갖춘 지회이다. 이런 저력은 앞서의 표면적인 활동 이외에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크게 드러나지는 않으나 알찬 움직임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이런 활동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공동 구매사업. 사실 성동지회의 공동 구매사

업은 뿌리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지회나 지부중 가장 먼저 이 사업을 시작한 곳이 성동지회라는 설명이다.

초창기 설탕, 콜라 등 같은 물품에서부터 시작한 공동 구매사업의 맥은 면면이 이어져 오늘날에는 밤, 아몬드, 건포도, 호두, 초콜릿, 빙수용 후르츠카테일 등으로 다양화 됐으며 이런 품목을 단돈 10원이라도 싸게 구입해 회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회비 온라인 납부 도입, 조직 활성화 계획

그리고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회원들이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부딪치게 되는 행정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활동.

성동지회는 허가, 위생을 비롯 관청과 관

공동 구매사업의 첫 장을 열었다는
성동지회는 회원의 친목과 함께 다
양한 품목의 공동 구매사업,
제과점 운영에서 부딪치는 회원업소의
관청과 관련된 행정 사항 등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는 지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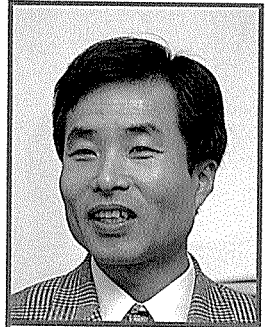
련된 행정 사항을 해당 구청과 직접 상대해 해결함으로써 적어도 회원 업소가 이 문제에 대해선 최대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회원 업소와 관련 행정지침을 각 업소마다 일일이 서신을 알리고 그 중 꼭 알아야 할 내용은 별도 표시를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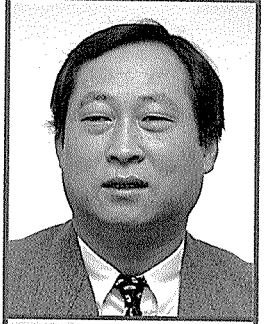
창립 4반세기를 맞이하는 성동지회는 올해 내부적으로 타 조직과 달리 좀 특이한 계획을 갖고 있다. 업무 효율을 위해 현재의 회비 납부 방식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관할 지역이 방대하고 부분적으로 밀집된 상권 특성상 일일이 회원 업소를 방문해 회비를 받는 인적·시간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타 조직에서 보편화되지 않은 온라인 납부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해당 지역에 300개 정도 있는 제과점 중 50%가 밀도는 회원 업소도 가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홍기 이사



신동군 감사



방한일 감사



김영권 자물지도의원

이와 함께 그동안 회원의 친목과 화합, 공동 구매사업을 통한 실질적 도움의 확대, 관청과 관련된 행정 사항을 통한 회원 보호 등에도 노력을 계속할 계획은 물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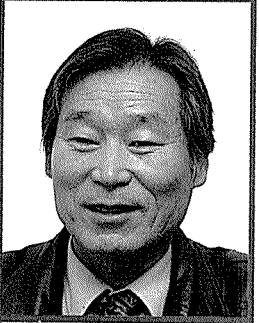
‘내실’이란 말은 말 그대로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으나 보이지 않게 속이 알찬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면에서 볼 때 성동지회는 회원의 친목은 물론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꾸준한 활동을 멈추지 않는 지회라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성동지회의 걸음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알찬 활동이 계속 되리라 믿으며 그 속에서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동지회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글 박중선)



황덕환 이사



신강휴 이사



이길현 이사



이원배 이사